

미래설계를 위한

허복 knowhow

APRIL 2017 vol.28 **MONTHLY MAGAZINE**



압화 방수정 작가 지품 '찰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은 오랜 세월의 집적이 아니라 '찰나'다. 순간에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완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봄, 찰니를 만끽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

캘리그라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타짜〉〈국순당 우국생, 백세주〉〈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크하는 크하는 인제나 그대년에 있다

기는고 사라백 주에서 시기터體이사하



행복을 위한 질문

발견하는 기쁨

관심에서 온다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사소한 물건이나 작은 것에서 얻는 기쁨이다. 늘 곁에 있어 무심코 지나쳤던 물건들, 발에 밟히는 줄도 모른 채 지나쳤던 어여쁜 작은 풀꽃들. 사소한 물건이나 작은 것들에 새삼 관심을 가지면 의외로 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라져가는 모든 시물에 대한 미소'라는 어여쁜 부제를 달고 있는 책 '사소한 발견'에서 저자는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끄집어낸다.

오랫동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의 먼지를 불어내고 손매로 쓱쓱 닦아내듯 작은 사물에 배어있는 추억들을 다시 불러온다. 작은 클립에서부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어린 시절의 장난감, 채 쓰지 못한 채 잃어버렸던 지우개까지. 작지만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 둘 떠오르면 입가에 미소가 벗진다.

봄이 되면 피어오르는 길가의 풀꽃들도 관심과 눈길을 주면 꽃집의 화려한 꽃들 못지않게 예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광대나물, 꽃마리, 꽃다지, 냉이꽃, 제비꽃 등 봄 들녘에 소박하게 피는 들꽃들은 그 이름도 예쁘다. 특히 꽃마리는 그 크기는 좁쌀만큼 작지만 기꺼이 몸을 숙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예쁜 꽃인지 발견하게 된다. 연한 하늘색을 띄는 다섯 장의 꽃잎 속에는 노란 동그라미가 있다. 꽃마리는 시골의 들녘뿐 아니라 도시의 개천가, 아파트의 화단과 빈터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관심만 있다면 작은 들꽃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주는 기쁨

나눔에서 온다

소설 '현자의 선물'에 나오는 이야기다. 돈리라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었다. 그는 굶주림에 지쳐 할 수 없이 고급 식당 앞에 서서 한 쌍의 부부에게 동정을 구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인이 우리만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1달러를 주었다.

04 | 05

돈리는 우선 1달러로 요기부터 하고 50센트를 남겼다. 그리고 남은 돈 50센트로 빵을 사서 굶주리고 있는 노인에게 주었다. 노인은 빵을 조금 떼어먹다가 남은 빵 조각을 종이로 쌌다. 그리고 길에서 신문을 파는 아이에게 주었다. 노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빵을 건네자이 아이는 좋아하며 빵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길 잃은 강아지가 빵 냄새를 맡고 꼬리를 치며 다가왔다. 이 소년은 조금 남은 빵 부스러기를 개한테 주었다.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러 뛰어갔고, 노인도 일감을 찾아 갔다.

그 모습을 보던 돈리는 "나도 이렇게 있을 순 없지." 생각하는 순간, 강아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돈리는 길 잃은 개의 목걸이에 적힌 주소를 보고 주인을 찾아갔다.

주인은 매우 고마워하며 10달러를 주었다. 그러면서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소,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라고 말했다.

드디어 돈리도 취직을 하게 되었다. 독일의 시인 요한 글라임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무언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주는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깊은 기쁨'일 것이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7년 04월호 vol.28

MONTHLY MAGAZINE. APRIL 2017





행복을 주는 사람 이춘자 시니어만화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위대한 포수 중 하나인 요기 베라가 남긴 명언이다. 늦은 나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다 보면 기회란 반드시 온 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춘자 작가는 '시니어만화가'라는 또 다른 가능성의 출발선에 섰다. 70 세를 훌쩍 넘겨 '내 인생 변화구'를 던진 이춘자 작가를 부천 카툰캠퍼스에서 만났다.



14

박나현 KEB하나은행 서울숲지점 과장

KEB하나은행 서울숲지점 박나현 과장의 하루는 손님의 요구시항들로 꽉 찬다. 손님의 사소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하고, 기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덕분에 실속있는 서비스로 손님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이다. 한 치의 허술함 없이 속을 꽉 채우는 그녀만의 일하는 공식은 손님에겐 만족, 자신에겐 보람으로 이어지는 똑똑한 성공방정식이다.

OPENING

O2 **행복을 위한 질문**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INTERVIEW

IFW/

○8 **행복을 주는 사람**

시니어만화가의 '행복한 삶의 기록'

INFO GRAPH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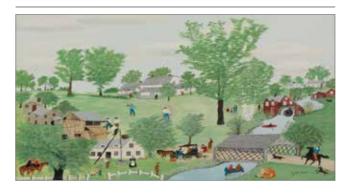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고령자취업 및 선택시 고려사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7년 04월호 vol.28 (통권 28호)

발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통력보 영등포, 라이424 통력 2015.01.27 제초 행복 Knowhow 2개 월간 발반 배현기 라틴 김대의 발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백 2017년 04월 07일 반타 02-2002-2200 제소 02-2002-2610 환파이 www.hanaif.re.kr 발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박지흥 연구원, KEB하나은행 │ 민경백 팀장, 최호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부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빛계획 톰커뮤니케이션즈 전략 02-3452-3789 출파이 www.teum.co.kr



28

Art In Culture 명화를 만나다, 그랜마 모제스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편견을 깨고 76세에 꿈에 도전해 101세로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며 세계적인 화가 반열에 오른 그랜마 모제스. 따뜻하고 포근한 그녀의 작품과 늦은 시작이었지만 꿈을 이룬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34

경제 이슈 | 중국 사드보복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산 불매운동과 한국여행 통제 등 한국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뜨겁다. 중국 사드보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다.

행복미래설계

14 **행복메신저**

'실속형서비스'로 신뢰 높인다

16 H씨의 행복설계

늦은 시기에 발생할 불확실한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중요

20 지식 플라자 - 세무

1세대 2주택 절세 전략은?

22 지식 플라자 - 상품소개

보급형 상속신탁 상품

Bravo! My Life

함께 읽기의 즐거움

26 Anti aging

봄, '제철음식'으로 건강한 식습관

28 Art In Culture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운 도전, 평온한 일상을 화폭에 담다

연금이슈포커스

30 **연금 포커스**

노인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사회변화와 대응

경제 TREND

34 경제 이슈

중국사드보복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8 **부동산 이슈**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꼼꼼히 따져 선별투자해야

GLOBAL

42 지구인 이야기

40세 중년국가, 대만의 노인복지 정책

FUTURE

44 **은퇴, 버킷리스트**

섬이라서 좋다! 느릿느릿 '섬 여행' Interview 행복을 주는 사람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08 | **09**



이춘자 • 시니어만화가

시니어만화가의 '행복한 삶의 기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위대한 포수 중 하나인 요기 베라가 남긴 명언이다. 늦은 나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다 보면 기회란 반드시 온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춘자 작가는 '시니어만화가'라는 또 다른 가능성의 출발선에 섰다. 70세를 훌쩍 넘겨 '내인생 변화구'를 던진 이춘자 작가를 부천 카툰캠퍼스에서 만났다.

설익은 열정으로 가득 찬젊은 시절엔 세상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성장한다. 노년이 되면 나자 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나이가 많아서', '젊은이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60~70년 동 안 쌓아온 경험, 가치관, 어른이라는 무게감이 자유를 억압한다. 사소한 뭔가를 시도하는 것조 차용기가 필요하다.

시니어만화가에 도전한 이춘자 작가. 그녀의 처음도 그랬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고, 우울하고 무료하기만 한 노년의 한 때가 힘겹기만 했다. 세상으로 한 발 내딛기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만화 수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평소 그림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처음 접한 만화가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평범하기만 했던 노년의 삶. 이주 사소한 용기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접해보니 노년에 접한 만화는 어린 시절의 향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발을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가 즐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만화라는 것이다.

"만화를 그리다 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몰입하는 순간엔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요. 만화를 만난 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만화가 이춘자라는 타이틀은 이전의 나에게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는 희망의 첫걸음인 셈이다.

카툰캠퍼스와 누나쓰를 만나다

꾸준히 만화의 열정에 불을 집필 수 있었던 건 '카툰캠퍼스'의 든든한 지원과 '누나쓰'로 뭉친 열정의 시니어만화가들 덕분이다.

누나쓰는 만화기획집단 카툰캠퍼스와 함께하는 동아리의 이름이다. 만남의 시작은 복지관수 업이었다. 초급반 10주, 심화반 10주를 배운 후 복지관에서 더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아쉬워하던 차에 카툰캠퍼스가 기회를 만들었다. 카툰캠퍼스 부천 사무실에서 일주일에한 번씩 모이며 만화의 연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동아리가 평균연령 73세 만화동아리 '누나쓰'다. 강시들이 모두 젊은 남자 작가 다 보니 누님들을 모시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누나쓰로 이름을 지었다고.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수업 주제와 관련해 메시지를 받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주제를 구상 하고, 펜으로 긁적이다 보면 어느새 아픈 몸은 온데간데 없고 책상에 앉아 새벽까지 작품 활동 에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이춘자 작가는 평생을 목회자 사모로 남편을 내조했고, 사별한 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 우울증도 겹쳐 무료한 일상이 이어졌다.

"만화에 몰입하면서 삶의 즐거움도 되찾았어요.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느끼는 삶의 보람으로 하루하루가 꽉 찬 기분입니다.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 새벽까지 만화를 그리는 일이 많아요. 덕분에 우울증도 사라지고 심심하고 무료할 틈이 없어요. 뭘 그릴 까, 뭘 할까 생각하니 피곤한 것도 이픈 것도 없어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느낌까지 든다니까." 만화를 그린 후 그녀의 하루하루는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다. 옛 기억들, 손자와 손녀, 산 책하며 마주하는 골목, 나들이하며 마주하는 풍경 등 모든 것이 만화의 소재가 된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느끼고, 기억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다가 왔다. 만화가 삶으로 들어온 순간, 그녀의 삶 또한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년의 시기가 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게 되죠. 조금만 용기를 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행복을 느끼는 일입니다."

66

만화에 불어하다전서 하는 물건 가는 도 되었었다.

강조적인 얼을 하다면서 느끼는 삶의 보라으로 하루하루가 꽉 찬 기분이다다.

고내지었게 사망할하고 있습니다. 중이하는 걸하다 보니 사내적까지 만화를 그 있는

얼이 말하면. 덕분에 수울하도 사용되고 싶었하고 무현할 틈이 됐어요.

만화.

열정에 불을 지피다

만화를 그린 후 나 자신의 변화는 물론 주변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삶에 대한 푸념이 아닌 희망과 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우리 할머니, 어머님이 만화를 그린다?'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런 걸 하시다니?'라며 감탄, 존경으로 응원해주고 있다. 가족의 응원은 만화에 대한 열정을 더 뜨겁게 달군다.

"주변 공원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제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생겨 가족들을 모두 초대했어 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 좋아해 주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가족, 친구와 관계 맺는 게 전부였던 그녀에게 대중과 교감하는 일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공공의 자리에 선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부딪히니 이처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없더군요."

이춘자 작가의 작품활동은 개인 창작에서 멈추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 목표다. 카툰캠퍼스, 누나쓰를 통해 다양한 이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작품명 : 춘자랑 누리랑

이 작품은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손녀 누리에게 본인이 겪은 전쟁의 끔찍함을 전해준다. 요즘 세대인 누리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진다. 피난길의 고생, 이산가족과 고이들의 아픔, 교실도 없이 공터에 앉아 가방도 책상도 없이 수업을 들어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리는 비가 와도 갈수 있는 유치원과 책상, 놀이기구 등을 떠올린다. 손녀가 자신의 여유와 넉넉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대화법을 만화형식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야기를 읽고 나면할머니의 사려 깊음을 생각하게 된다.

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 삶의 목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자 장점은 인생경험에서 오는 통찰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자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만화로 사람들에게 인생을 나누며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고 얘기한다. 평생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온 노년 세대를 흔히 박물관에 비유하기도 한다. 60, 70년의 역사를 가진 노년의 삶은 모두가 엄청난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위로가 되기에 충분하다.

info graphy

취업 현황

통계청,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 :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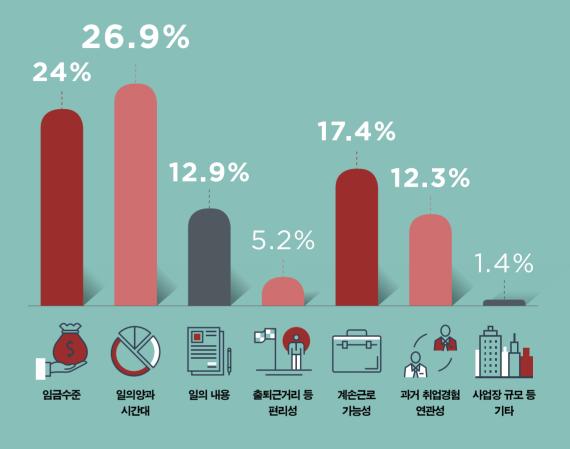
고령층(55~79세)은 취업시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로 친구 · 친지의 소개나 부탁을 통해 취업

9.2% 22.9% \$BOD / \$BOD

Althe 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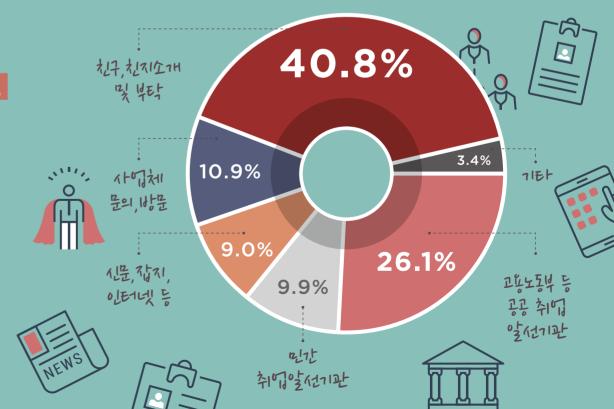
2. 일자리 선택기준

자료: 통계청,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 통계청,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행복미래설계 **행복메신저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14 | **15**



입사 10년 차, 수신 업무로 경력을 이어오던 박 과장은 작년 7월부터 가계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 고객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그녀는 "상호 간의 신뢰는 일 방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며 "손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이후에 손님 입장에서의 배려를 지속할때만들어지는 것이 신뢰"라고 강조한다.

그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가계대출이다. 단순히 대출업무만 충실해도 되지만 꼼꼼한 오지 랖으로 손님들의 만족과 기쁨을 이끌어내고 있다.

"상담하면서 손님이 원하는 추가 필요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본 후 손님께 추천해드리면 대부분 만족해하세요. 단편적인 내용을 넘어 전반적인 상담이 필요한 손님이 의외로 많아요. 놓친 부분까지 체크해드리면 자연스럽게 손님 과의 신뢰는 두터워지는 것 같습니다."

손님에게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박 과장은 앞으로 '외환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환 관련 자격증은 있지만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녀의 똑똑한 노력은 멈춤이 없다.

하는 아니신건 어디아 첫 지점에서 알게 된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손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업점에서 최고의 VIP였지만 해외에 거주해 상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였어요. 보통 한국 입국 직전에 필요한 업무와 상담 가능 시간을 파악해 그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자녀가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고 다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저의 최대 VIP 고 객으로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리 TIP

1. 노후, 지금 점검하자

현재 나의 재무 상태, 준비된 연금상품, 노후 자금 등 노후준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황 파악은 빠를수록 좋고 현실소득과 미래의 필요자원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신24 2. 연금자산을 준비하자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자산을 현 소득의 일정수준 내에서 준비하자.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와 노후 준비자금의 비율을 1:1로 동등하게 맞추고 연금자산으로는 재테크와 세테크가 가능한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을 적극 활용하자.

3. 언제나 현역처럼 살자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현직시절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나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의 일을 갖자.

ㅎţţţ니니신21 Eţţ 행복미래설계 H씨의 행복설계 글, KEB하나은행·하나금융경영연구소 16 | 17

늦은시기에 발생할 불확실한이벤트에 대한 적 절한 준비가 중요

대기업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H씨(만 41세)는 이직 미혼이다. H씨는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아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축적했으며, 근로소득에서 약 절반 가까이를 저축하고 있는 상황. 다만, 향후에 결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생기게 될 경우 이를 대비한 목돈 마련의 과제를 안고 있다.
H씨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 미혼이나 향후 결혼 및 육아 비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가능 여부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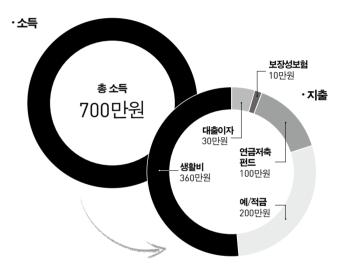
대기업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H씨(만 41세)는 아직 미혼이다. 현재 5.2억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연금저 축펀드 8,000만원이 있다. 부채로는 아파트 구입 시 차입한 주택담보대출 1,2억원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수입으로는 근로소득 월 700만원이 있으며, 지출로는 취미생활을 위한 지출을 포함해 생활비 360만원, 예/적금 200만원, 연금저축펀드 100만원, 보장성보험 10만원, 대출이자 30만원이 있다.

H씨는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아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축적했으며, 근로소득에서 약 절반 가까이를 저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독신으로 살 계획은 없으며 향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될 경우 이를 대비한 목돈 마련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결혼 비용으로는 약 1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로는 약 2억원을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아직은 먼 미래지만 자녀 결혼비용(1억원 예상)까지 감안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5.2억 원
	연금저축펀드	0.8억 원
• 부채	주택담보대 <u>출</u>	1.2억 원
• 순자산		4.8억 원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발생하는 이벤트 비용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

우선 H씨의 경우 현재 미혼이며, 추후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 설정이 필요하다. 본지에서는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1년 후인 만 42세에 결혼을 하고 다시 1년 후인 만 43세에 자녀를 출산하며, 배우자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의 경우 현재 축적해둔 금융자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1억원)을 추가적으로 받아 기존 대출(1.2억원)과 함께 향후 10년간 원리금분할상환을 하는 것을 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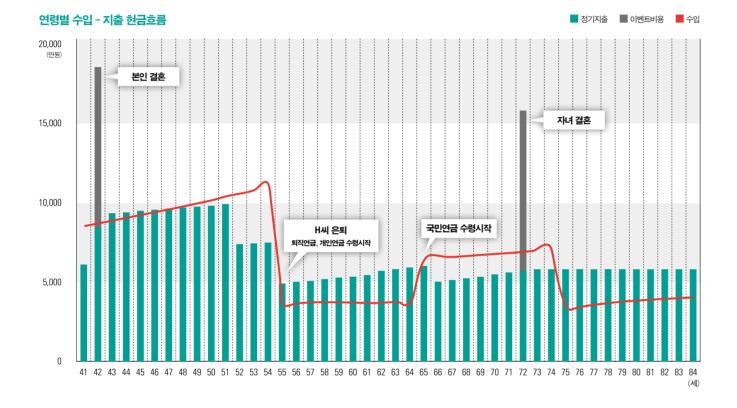
H씨는 대략 55세 정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취미생활 지출 등을 포함해 36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다. 향후 결혼을 하게 되면 취미생활 등은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늘어남을 감안해 기존과 같은 생활비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은퇴후에는 이보다 적은 25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금흐름 파악을 위해 미래 수입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만 65세부터는 월 142만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퇴직연금의 경우은퇴 직후인만 55세부터 20년간월 145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현재연금저축편드로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도만 55세부터 20년간월 157만원을 수령할 계획이다. 구체적인은퇴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미혼인 시기인만 41세까지는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는만 42세이후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어지기 때문에자산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대출 상환이 완납되는만 52세부터은퇴전까지 여유 자금이 발생한다. 은퇴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다 국민연금

¹⁾ 물가상승률은 2.0%를 가정하고 수입은 소득에 연금 수급액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행복미래설계 **H씨의 행복설계** 18 | **19**

을 받기 시작하는 만 65세부터는 여유 자금이 발생한다. 만 72세 때 자녀가 결혼할 것을 대비해 목돈 마련도 필요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이 끝나는 만 75세부터는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기존 보유 자산에서 충당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시기마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며,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운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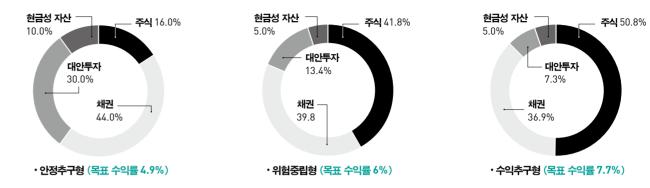
금융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

H씨가 본지의 시나리오대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실물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금융자산만을 활용한다면 필요한 금융자산의 수익률은 6.57%이다. 현재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6%이고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7.7%인데, H씨의 요구 수익률은 그 중간 즈음에 있다고 볼수 있다. 운용 여하에 따라서 달성가능한 수익률이지만 그에 대응해 상당한 위험도 수반된다, 따라서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지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 일부에 불과하다. 1명으로 가정한 자녀가 2명이 될 수도 있으며, 조금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금의 결과와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는 금융자산만을 활용하더라도 노후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올 수 있으나 다른 시나리오에서

는 부동산자산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매년마다 인생 계획을 점검해보고 재무설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금융자산만을 활용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자산(5.2억원 상당)은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보유한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과세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기적으로 증여하거나 은행의 신탁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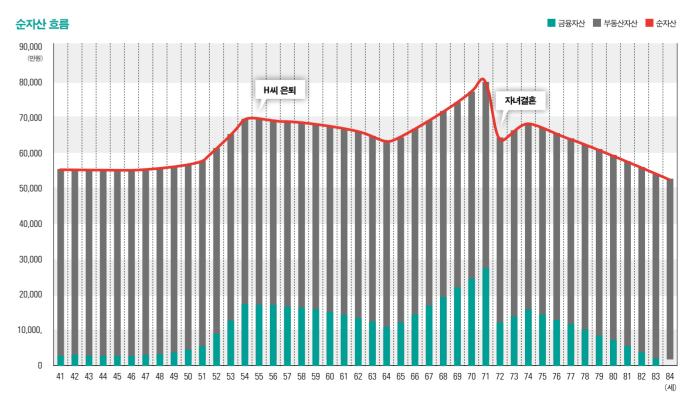
●주: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월 투자성항에 따라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수입추구형' 포트폴리오를 제시 ●자료: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7.04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기적인 재무설계가 필요

H씨의 경우 현재는 미혼이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지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H씨의 재무 설계를 했다. 그 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운용이 수반된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H씨가 그동안 미혼으로 살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축적해놓은 것도 있지만 3층 연금 체계를 잘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더라도 큰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연금과 같은 현금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하는 것임을 위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다만, 실제로 가정을 꾸리면서 생활하게 되면 결혼 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예기치 못한 지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H씨의 사례와 같이 큰 이벤트의 발생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기적인 재무설계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복미래설계 지식프라자 - 세무 글. 박정국 현 KEB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20 | **21**

1세대 2주택 절세 절세 전략은?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다.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하는데, 다음 내용은 1세대 2주택을 소유할 경우 절세 내용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 관련해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다. 상속으로, 투자목적으로, 이사를 위해, 결혼 등 다양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다. 사례를 통해서 주택 관련 절세 방법을 살펴보자.

1.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김한국씨가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한 주택이다. 따라서 상속일 현재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은(2년 이상 보유 요건 필요)를 언제 양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9억 이하인 경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처분한다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절세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1주택(소유 기간이 동일하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김한국씨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상속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물론 기족 간협의가 필요하다. 기존주택과 상속주택 모두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면 주택 임대소득의 세금 부분을 체크해야한다. 부부합산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월세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월세와 전세의 적절한 조합을 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경우

김한국씨가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 투자 또는 이사 목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2년 이상 보유 요건 필요)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만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이 안된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단독 명의가 좋을까? 공동 명의가 좋을까? 취득세 측면에서는 단독 이든 공동이든 전체의 세부담은 동일하다. 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후 단독이면 1명이 전부 취득세를 납부

하는 것이고 공동이면 지분 비율로 쪼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세부담은 차이가 없다. 취득세(부가되는 세금 포함)는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억 이하는 1.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2%, 9억 초과는 3.3%이다. 가령, 25평 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한다면 취득세율(부가되는 세율 포함)은 2.2%인데 공동으로 구입하더라도 세부담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전체 주택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지분비율로 나누기 때문이다. 상기처럼 취득세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차이가 없지만 임대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은 인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을임대목적으로 취득하고 연간 임대료가 4,000만원으로 예상된다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인별 2,000만원이므로임대소득 전체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세금도 절세하고 배우자의 사랑도확인할 수 있으니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로 세금계산을 한다. 따라서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된다.

3. 주택을 증여 받은 경우

김한국씨가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증여 받으면 어떻게 될까? 김한국씨가 주택을 증여 받아 1 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면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증여 받아야만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효도를 위해 세대를 합기한 경우

김한국씨가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아버지와 세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노부모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노부모와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한국 씨의 주택이나 아버지의 주택 중 1채를 양도한다면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다. 5년 이1채를 먼저 양도하고 그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면 2채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 취학·근무상 형편과 질병의 요양을 위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김한국씨가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이유로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을 매입하여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6. 주택 1채를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김한국씨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비과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의하여 2채 모두 2년 이상 보유했다면 5년 이내에 2채 중 1채는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구분	내용		
상속	상속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매입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증여	새로운 주택을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기능		
동거봉양	세대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		
근무상 형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행복미래설계 지식프라자 - 상품소개

보급형 상속신탁 상품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고령층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노인가구의 비중도 증가하면서 사후 보유자산의 적절한 처리에 대한 관심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 령층의 이러한 니즈에 대응하여 금융사들은 생전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자산을 관리ㆍ처분ㆍ상속해주는 신탁상품들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상품과는 달리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KEB하나은행의 '가족배려신탁'과 같은 보급형 상속신탁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급형 상속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고령자대상 상품들이 최소기입금액을 3억원~10억원으로 제한하며 고액자산기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소액적립만으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상속관련 신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족배려신탁의 경우 성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예치형을 가입할 경우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월납형의 경우는 최저 1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만원 적립단위로 가입이 가능해 고객자산가가 아니어도 이용에 부담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신탁을 통해 사후 유산분할 협의 없이 신속하게 귀속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본인 유고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연계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상속재산분할 자문이나 상속신고시 세무 및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품정리관련 유지전달 서비스도 부가서비스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시후 상속자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하거나 1인 기구로 시후 장례절차 등에 대해 고민인 고령자들은 보급형 상속신탁 상품의 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상속신탁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속예정자들과 충분히 논의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전문 상담사들과 협의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기족배려신탁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요내용	-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예치 및 관리 - 가입 시 손님의 기족이나 믿을 만한자 중 한분을 귀속권리자로 지정 - 상속발생시 귀속권리자는 은행을 방문해 맡겨놓은 신탁재산을 신속하게 수령하는 것이 가능
가입대상 및 수탁자산	- 신탁대상 : 성년 개인 - 수탁자산 : 금전
지원금액	- 예치형 :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월납형 : 적립단위가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부가서비스	-상조회사 연계 서비스, 시후 상속관련 세무 및 법률 지문 서비스, 유품정리관련 유지전달 및 유언장 작성 등 유산정리 서비스

하나금융그룹

KEB하나 가족배려신탁

손님의 상속개시 후 미리 지정하신 가족이나 믿을만한 분에게(귀속권리자) 보관하고있는 신탁 재산을 지급해드리는 상품으로, 당장의 필요자금과 장례비용 등 만일의 경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성년 개인

· 수탁자산

금전

· 운용방법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거 운용

·세부내용

구분	예치형	월납형	
금액	최소 5백만원 ~ 최대 5천만원	최소 1만원 ~ 최대 5천만원 / 적립단위 최소 1만원이상	
추가납입	가능 / 중도인출 불가		
중도해지	가능 (별도 중도해지 수수료 무)		
신탁보수	가입금액의 연 0.4% 후취		
사후집행보수	유형①,④형 신탁잔액 1% / 유형②,⑤형 신탁잔액 1.5% / 유형③,⑥형 1.2%		

· 상품유형

	사후집행보수	
유형 ①,④형 [단순지급형]	귀속권리자 앞 지급 서비스	신탁잔액 1%
유형 ②,⑤형[상조추가형]	상조서비스 제휴 연계 안내 및 귀속권리자(사후수익자) 앞 지급서비스	신탁잔액 1.5%
유형 ③,⑥형[상조우대형]	상조회사를 통한 가입시 우대서비스 제공	신탁잔액 1.2%

-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한국금유투자협회 상사필제17-01378호(2017-03-29-2017,12.31)/CC브랜드170329-288



행복미래설계 Bravo! My Life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24 | 25

함께 읽기의 즐거움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다? 사고의 한계가 답답하기만 하다? 창조적 사고가 갈급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골방에서 탈출하라. 학교, 도서관, 직장, 마을, 카페로 나와 책을 이야기하자.

바로 지금이 '함께 읽기' 좋은 때.

토요일 오전 합정동의 한 카페 구석진 자리, 성인 남녀 4명이 기형도의 '입속의 검은 잎' 시 낭송이 한창이다. 박찬 감동을 서로 나누다 보니 어느덧 두 시간을 훌쩍 넘겼다. 참석한 회사원 민현준 씨(40세)는 매일이어지는 격한 업무에 지쳐갈 때쯤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독서모임'에 참여하게 됐고, 조금씩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삶의 차원이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밥벌이의 현실을 벗어나 시를 읽는 이 시간은 온전히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때론 위로를 얻고, 때론 희망을 꿈꾸게 하는 유일한 시간이죠."

독서모임에 참여한 후 일상의 변화도 생겨났다. 틈틈이 독서를 하다 보니 시간 활용에 짜임새가 생겼다. 책을 읽고 난 후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다 보니 사고도 유연해진 기분이다. 관계가 주는 유익함은 덤이다. 최근 독서모임이 인기다. 공공도서관이나 출판사들이 운영하는 북클럽이 전부였던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자발적인 독서 동호회, 기업 내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금처럼 독서모임은 소통이 절실한 시대에 사회적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알파고의 등장 이후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은



독서모임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네 책방, 북카페의 유행과 맞물리면서 더욱 인기가 뜨겁다. 전문가들은 "함께읽기는 책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통과 단절이 공존하는 시 대에 모여서 읽고 토론하는 것이야말로 너와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독서모임은 목적과 수준, 회원들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강의형은 독서와 강의가 함께 이뤄지는 형태로 학습공동체를 지향한다. 토론형은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다. 고백형은 감상 발표가 중심이 되고, 책을 읽다 떠올린 자신의 특별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 반성, 후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최근에는 독서모임이 북 콘서트, 원작 영화 감상, 인문학 여행, 고전낭독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화정 북코디네이터

함께 읽기, 독서모임이 주는 유익함은?

함께 읽기는 굳어진 사고, 내 안의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타인의 시선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임들은 지위나 역할에 따라 관계가 규정되지요. 사회적 가면, 심지어는 마음의 가면을 쓰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은 즐겁고 유익한 것 같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헛헛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반면 독서모임은 책을 중심으로 만나는 자리고, 책속의 인물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조금은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임이 지속되는 동안 이름 앞의 많은 수식어를 떼어내고 고유한 한 존재로서 서로를 깊이 만나는 소통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독서모임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비슷한 생각과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요. 은퇴 후에 독서모임을 통해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독서모임을 통해 각자가 가진 재능과 역량들을 모으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자신의 성장 뿐 아니라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모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독서모임에 참여할 수 있나?

독서 문화가 확산되고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지역 도서관마다 책모임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도서관마다 저자 초청강의나 북 콘서트를 수시로 여는데요,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신뢰할 만한 블로거들이 올리는 책 정보나 모임 정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지인과 함께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독서모임이란?

책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성장하는 느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임이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임은 함께 책을 읽는 동안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깊어집니다. 책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성실한 책읽기입니다. 완독은 기본이고, 경청하는 자세가 특히 중요합니다. 들을 청(聽)의 한자가 말해주듯이 귀와 눈을 열어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여 들을 때 마음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 모임은 함께 읽고, 열심히 듣고, 마음을 나누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지식과 지혜가 자라는 모임입니다.

행복미래설계 Anti aging 글. 박지연 기자 pjy95@naver.com 26 | **27**

봄,

'제철음식'으로 건강한 식습관

봄의 생명력이 깃든 제철 요리는 겨우내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준다.

민들레, 머위, 냉이, 달래 등을 조물조물 무쳐서 식탁 위에 올리면,

봄의 향기를 식탁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미국의 건강관련 잡지 헬스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한 논문 150편을 조사해 결과를 소개했다.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습관이 있을까. 먼저, 하루 식사의 95%는 식물성 식품으로 먹었다. 즉 곡물, 콩류, 채소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데, 특히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었다. 먹고 남은 채소는 절이거나 말려서 보관해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 장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물성 식품은 푸른 잎채소다. 장수와 관련된 몇몇 연구논문에 따르면 매일 조리된 잎채소를 한 컵 분량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향후 4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다음으로 육류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생선은 매일 조금씩 섭취했다. 미국인 9만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장수하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매일 생선을 조금씩 먹는 사람들이었다. 겨우내 지친 몸과 마음에 제철에 나는 채소와 생선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충전해보자.

봄, 제철 채소와 해산물



냉이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으로 봄나물을 대표하는 냉이는 다른 채소에 비해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랑으로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어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채소임에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과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좋고 따뜻한 기운이 있다.



달래 봄철 산이나 들에서 캔 달래는 풍미가 좋고 매운 맛이 강해 봄에 많이 먹는 나물 중 하나다. 달래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칼슘이 풍부해 식욕부진이나 춘곤증에도 좋다.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C는 조리 과정에서 가열로 인해 70~80%가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무쳐먹는 것이 좋다.



쑥 쑥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 특히 쑥은 성질이 따뜻해 몸 안의 냉기와 습기를 내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리불순, 냉대하 등 부인병에 효과가 있다. 또한 피를 맑게 해주고 섬유질이 많으며 고혈압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 이 밖에도 해열, 해독, 구충 작용을 하며 소염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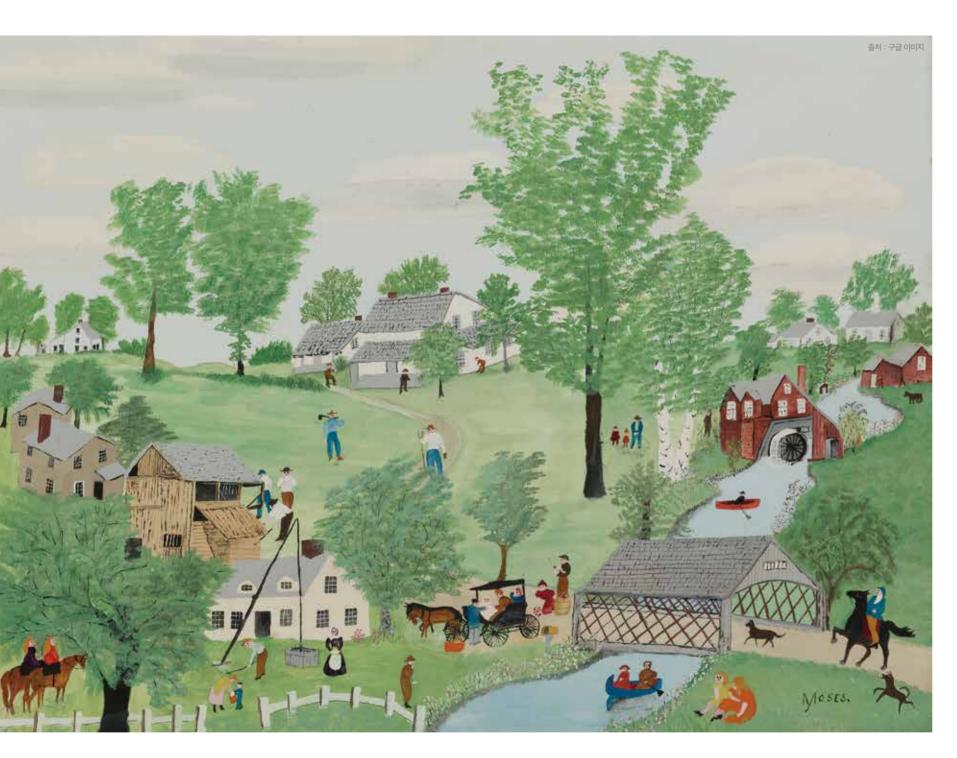


주꾸미 주꾸미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리며 봄철 많이 나는 해산물이다. 3~5월까지 산란기에 접어드는 주꾸미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타우린은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DHA가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 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도다리 '도다리쑥국'은 봄에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다. 도다리는 쑥과 함께 끓이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봄의 향기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봄에는 도다리, 가을에는 전어'라는 말이 있듯 도다리는 봄을 대표하는 생선이며 도다리에는 나이신, 각종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열량도 낮아 다이 어트에 효과적이다.

행복미래설계 Art In Culture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28 | 29



명 · 화 · 를 · 만 · 나 · 다 - 그랜마 모제스(Grandma Moses)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운 도전, 등 평온한 일상을 화폭에 담다



봄 봄3 그랜마 모제스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미국 시골생활을 천진난만하 게 기록하며 평범한 삶의 행복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화폭에 담고 있다.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편견을 깨고 76세에 꿈에 도전해 101세로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며 세계적인 화가 반열에 오른 그랜마 모제스. 따뜻하고 포근한 그녀의 작품과 늦은 시작이었지만 꿈을 이룬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미국 포크 아트의 대가이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인 그랜마 모제스(본명 안나 마리 로버트슨 모제스, 1860년~1961년)의 작품은 따뜻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그랜마 모제스의 작품에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시골생활의 향수가 담겨져 있다. 특히 계절을 따라 일상생활을 그린 세시기(歲時記)풍의 회화는 소박한 리얼리티를 갖고 있다. 작품 봄, 봄3의 정겨운 풍경을 따라가 보자.

봄, 봄3는 시골 마을의 설레임 가득한 봄 풍경을 화폭에 담는다. 작품 봄에는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 아래로 평화로운 시골의 봄 풍경이 펼쳐진다. 화사한 봄날 시냇물에는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마을 어귀로 나와 저마다의 일상을 즐긴다. 따뜻한 봄볕에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과 손잡고 봄의 기운을 만끽하기도 한다. 봄 농사가 한창인 때라 밀짚모자를 쓴 농부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기만 하다. 봄3에는 겨우내 얼어붙은 밭을 일구며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의 모습과 꽃을 따는 천진 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에는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하다. 모지스가 영감을 받은 것은 오직 행복했던 농장생활 그리고 함께 어울리던 이웃과의 추억이었음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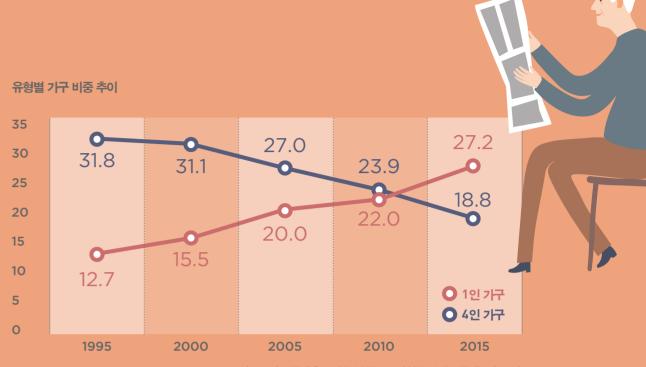
그랜마 모제스는 농부의 아내로 농촌일만 하다가 76세에 붓을 들고는 101세에 죽을 때까지 1,600점의 작품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그랜마 모제스의 그림은 그녀가 살아왔던 자연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경건함과 인생에 대한 소박한 성찰이 그림 속에 그대로 묻어난다"며 "건강한 리얼리즘이 담긴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나이를 초월해서 간직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 그랜마 모제스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연금이슈포커스 연금포커스 글. 류창원 연구위원 cwryu@hanafn.com 30 | **31**



급증하는 1인 가구와 함께 노인 1인 가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평균수명에서의 남녀 차이,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도시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에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다. 피할 수 없는 노인 1인 가구 시대, 사회적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국 일반가구 1,911만 세대 중 1인 가구는 520만 세대에 달한다.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로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28.0%), 영국(28.5%), 일본(32.7%), 노르웨이(37.9%)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치로 향후 우리나라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증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구 분화를 바탕으로 경제 · 문화 ·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5), 통계청(2016), 주택금융공사

급증하는 1인 가구와 함께 노인 1인 가구도 크게 증가

한편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1인 가구(독거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 평균수명에서의 남녀 차이,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도시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노인의 독거 비율이 남자에 비해 매우 높다. 한국복지패널 9차 년도(2014)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자노인은 1인 가구 비중이 8.9% 불과하나, 여자노인은 29.7%에 달한다. 남자노인은 대다수가 배우자와함께 살고 독거 비율이 낮으나, 여성노인은 배우자보다 연령이 대부분 낮고 평균수명도 길어 노년기를 1인 가구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2030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약 91세로 90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래사는 만큼 '독거 리스크'도 커지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1인 기구 추계 (2005년~2035년)

	2005	2015	2025	2035
전체인구수(명)	48,138,077	50,617,045	51,972,363	51,888,486
독거인구수	3,187,151	5,060,551	6,560,883	7,628,065
노인수	4,366,642	6,624,120	10,331,075	14,750,787
독거노인수	776,996	1,379,066	2,247,735	3,429,621
고령화율(%)	9.1	13.1	19.9	28.4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	17.8	20.8	21.8	23.2
독거인구 중 노인 비율(%)	24.4	27.3	34.3	4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연금이슈포커스 연금포커스

노인 1인 가구의 독거 이유는 다양

노인 1인 가구가 혼자 생활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개인생활 유지를 위해서(20.1%), 살고 있는 주거지를 떠나기 싫어서(19.3%), 자녀 결혼(18.0%), 자녀가 별거를 희망하여(13.1%),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13.0%)의 순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독거 이유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 거주지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농어촌 지역에서 높다. 취업이나 결혼으로 자녀가 도시로 이동하더라도 평생 생활해 온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노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노인 1인 가구의 절대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독거 사유에 따라 니즈도 다양하므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도 적극적으로 관련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의 제 특성별 독거 이유(2014년)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에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

1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며 유통, 제조, 외식, 문화 등 산업영역 전반의 구조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노인 1인 가구 역시 새로운 소비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민간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소니와 도쿄전력은 노인을 위한 주택 가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가전제품 사용 패턴이 평소와 다를 경우 이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가족이나 인근 복지단체에 연락한다. 보험 분야에서도 상품 출시가 활발하다. 임대주택보상보험은 독거노인 고독사 이후 집주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시신 수습 및 정리 비용을 보상해준다. AIR 소액단기보험의 경우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방 1개당 월 300~500엔의 보험료에 고독사 발생 시 집수리 정도에 따라 최고 100만~200만엔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많은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인 1인 가구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 1인 가구의 53.6%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비독거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건강도 좋지 않다. 결식률이 24.0%에 달하고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55.9%에 달한다. 정서적으로도 유대 관계가 약해지고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는 자살, 고독사의 증가로 나타난다. 2012년 741명이었던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1,245명으로 꾸준히 증기하고 있다. 상당수가 독거노인으로 추정된다. 인생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맞이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쉽지 않은 세상이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정해진 미래, 사회적 대응이 필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정해진 미래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독거노인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니즈 다양성과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정책 개입이 우선되어야 할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 1인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예산이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주거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주거 유형을 개발하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위례신도시에서 처음 도입한 공공실버주택은 좋은 사례다. 공공실버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운동시설과 헬스케어 시설이 구비돼 있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코하우징(Co-housing)이 발달하여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도 노인 1인 가구가함께 살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 혼자서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의 가시를 수행하기 어렵고 공동 구매가 비용 효과적이므로 민간 부문에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예 식사 및 영양서비스, 가정관리서비스, 수발서비스 등)를 개발해야 한다. 물론 초기에는 시장 형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적극적 자세로 독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

사회적 ·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원의 대비는 중요하다. 누구나 1인 가구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은퇴자나 은퇴준비자 모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비상시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노인 1인 가구는 혼자다보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비상시 연락망과 대처 방법을 구비하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즉 각적인 대처가 더욱 힘들어진다. 평상시 건강관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힘이 된다. 1인 가구가 되면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지고 특히 식생활이 부실해져 건강이 나빠지기 십상이므로 이런 부분부터 신경쓸 필요가 있다.

노인 1인 가구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우울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주변과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다. 65세 이상 노인 1인 기구의 90%가 집에서 종일 TV시청이 취미라 한다. 일본 사례이나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교류하고 단절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리가 먼 곳 보다는 주변의 주민 센터 프로그램부터 적극 활용해보자.

노인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당장은 경제력이 있더라도 주변의 견제가 없어 무절제한 소비가 이어지다 보면 빈곤층으로 하락할 우려가 크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절제 있는 소비를 실천하고 미래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자. 연금 수급을 다소 늦추거나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경제트렌드 **경제이슈** 글. 김영준 연구위원 kimekono@hanafn.com

중국 사드보복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THAAD ·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산 불매운동과 한국여행 통제 등 한국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뜨겁다.

중국 사드보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다.

사드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본격화

중국이 사드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이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전세기 운항 불혀와 드라마 방영 제한 등 소극적 대응에 그쳤던 중국이 2월 28일 우리 정부가 롯데와 사드부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복성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여행상품 전면금지를 지시한데 이어 롯데가 운영하는 유통 계열사 매장에 대한 소방 및 위생 점검을 벌여 매장의 약 80%에 해당하는 67개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렸다. 관영언론을 통한 반한감정 조장과 민간차원의 한국제품 불매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3월 중순 이후 중국내의 과도한 반한감정에 대한 우려와 틸러슨 미(美) 국무장관의 '사드보복 유감' 발표를 전후로 중국 정부가 강경대응 자제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드배치를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강화로 이해한다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언제 다시 보복이 강화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산 불매운동과 한국여행 통제 등이

한국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어

중국은 과거에도 국가 간 외교·안보적 갈등이 고조될 경우 경제보복을 일삼아 왔다. 2010년과 2012년 일본과 센키쿠 영토 분쟁이 발발했을 때 희토류 수출 중단과 관광제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벌였으며, 2016년 대만과의 양안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자국민의 대만 관광을 제한한 바가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영토분쟁 과정에서도 관광금지, 식품 검역 절차 강화등 비슷한 경제보복이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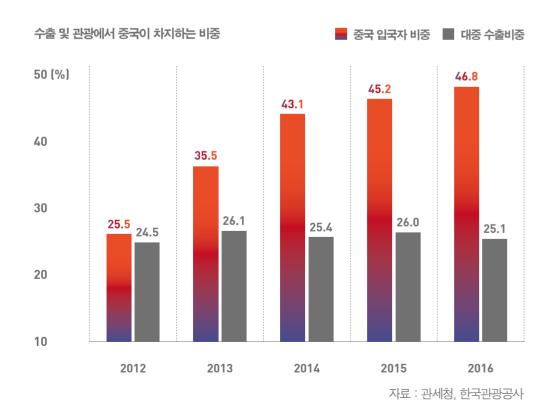
과거의 전례를 감안할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경제보복 수단은 크게 5가지로 판단된다. 첫 번째 수단은 관영언론 등을 통한 반한감정 확산과 이로 인한 한국산 불매운동과 한국기업 이미지 실추 등이다. 실제 과거 일본과의 영토 분쟁 시 대규모 반일시위와 함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부 점포에 대한 폭력시위로 일본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속출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관영언론 등의 반한감정 조장 보도 이후 중국 SNS에는 한국산 자동차를 벽돌로 파손하거나 롯데마트 상품을 훼손한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내에서 수요가 급증해온 화장품과 한류 콘텐츠는 불매운동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년 화장품 및 한류 콘텐츠의 대중(對中)수출액은 각각 16.1억 달러와 14.5억 달러 수준이다.

두 번째 제재는 유커의 한국여행 통제와 비자발급 제한 등을 통하여 한국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과거 일본 및 대만과의 갈등에 중국은 자국민의 관광을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일본 및 대만방문이 30% 가량 감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은 작년 8월부터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한국으로의 여행상품을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은 807

경제트렌드 **경제이슈**

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46.8%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쇼핑과 관광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186억 달러로 GDP의 1.3%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여행 통제는 한국입장에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경제제재 수단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 환경, 조세 등의 표적단속 가능성이다. 지금까지의 표적단속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게 집중되고 있다. 중국내 롯데마트에 대한 세무·소방 위생 안전 점검과 영업정지 조치, 상하이 롯데 중국본부에 대한 세무조사,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소방점검과 공사 중단 등이 사드배치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 3,500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아서 반한감정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높다. 규모별로도 80% 기량이 중소기업이어서 경제보복을 견뎌낼 체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올해 들어서는 한국으로의 여행상품을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은 807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46.8%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쇼핑과 관광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186억 달러로 GDP의 1.3%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여행 통제는 한국입장에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소비재 수출비중이 낮아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규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

네 번째 경제제재로는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통관 지연, 위생검사 등 비관세 장벽 강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중국은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토분쟁 당시 병충해 등을 이유로 필리핀산(産) 바나나의 통관을 보류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산 김치나 우유 등 농식물이나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중국 시장진입을 막고 한국산 부품 및 중간재에 대한 통관을 지연하여 중국내 한국공장의 조업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이 50%에 육박하고, 그중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1/4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급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무역은 대체로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비중 29%)와 자본재(62%)를 중국에서 가공조립한 후 선진국에 수출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대체가 힘든 원자재 및 자본재 부문의 수출타격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경제보복 수단은 채권, 부동산 등 국내 자산시장에 투자한 중국 자본의 철수이다. 중국자본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161억 달러 규모의 한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총 241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집행 중이다. 특히 외환보유고 다변화 노력으로 중국은 한국채권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차입, 무역신용 등의 기타투자 금액도 172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규모도 2016년 기준으로 2만 필지, 2.5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중국 자본이 일거에 국내 자산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금리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본의 철수는 최후의 보복수단이기 때문에 양국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 전까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과 경영의 현지화로 경제외적인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수출의 25.1%, 관광객의 46.8%를 중국이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보복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중 교역구조상 소비재 수출비중이 크기 않다는 점에서 우려만큼 대중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사드배치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화장품 등소비재 수출과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이나+1' 등 시장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 드관련 보복이 향후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포스트 차이나' 전략 구상 등을 통하 여 경제 전반에 걸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과 경영의 현지화를 통하여 경제외적인 리스크를 최 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트렌드 **부동산 이슈 글.** 손정락 연구위원 urbang@hanafn.com 38 | **39**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꼼꼼히 따져 선별투자해야

최근 서민형 수익형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상품 대비 높은 임대수익률, 시세차익 기회, 분양규제 미적용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등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피스텔 투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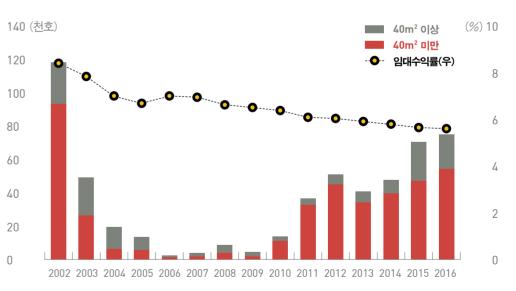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지속적인 하락세

대표적인 서민형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공급 증가로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투자가 늘어나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 평당 가격은 2013년 1,390만원에서 2016년 1,484만원으로 올랐다. 3년간 6.8% 상 승했는데, 2010~2013년 사이의 4.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이 7.2%, 경기도가 9.5%, 인천이 9.4% 오르는 등 수도권에서 가격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

2013년 전국 5.76%, 서울 5.33%였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6년 각각 5.35%, 5.01%로 낮아졌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용으로 매입하는 전용면적 $60m^2$ 이상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2016년 전국 4.89%, 서울 4.84%에 불과하다. 투자 상품으로 인기 높은 전용면적 $40m^2$ 미만은 서울을 제외하면 5% 중반대의 수익률이 가능하지만, 서울에서는 예상 수익률이 4% 남짓에 불과한 신축 오피스텔도 종종 볼 수 있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과 임대수익률 추이



주: 전용면적 기준 | 자료: 부동산114

66 투자 상품으로 인기 높은 전용면적 40㎡ 미만은 서울을 제외하면 5% 중반대의 수익률이 가능하지만, 서울에서는 예상 수익률이 4% 남짓에 불과한 신축 오피스텔도 종종 볼 수 있다. ●●

하나금융그룹

금융상품 대비 높은 임대수익률, 시세차익 기회, 분양규제 미적용 등이 장점

임대수익률 하락에도 오피스텔 투자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다 금융상품 수익률이 2% 남짓에 불과하다 보니 5% 가량의 수익률이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보다는 덜하지만 주거 선호지역에서는 시세차익을 볼 수도 있다. 일례로 강서구의 오피스텔 평당 가격은 마곡 등 인기지역 신규분양의 영향으로 2013 년부터 2016년까지 24.6%나 오르며 서울시 평균 상승률(7.2%)을 크게 상회하였다. 규제가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작년 11.3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분양권전매와 청약제한이 강화되었지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이면, 분양받은 후 준공되기 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도 있다.

금리상승으로 수익률 추가 하락 우려, 반면 임차인 확보경쟁은 심화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1금융권에서도 3% 중후반대의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더욱 오를 가능성도 높다. 미국에서 올해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3월에 1차례 이미 인상)되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계속 상습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신축 오피스텔에서 볼 수 있는 4%의 임대수익률로는 차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힘들다.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계속 늘어나며임차인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임대료를 올려받기도 쉽지 않다.

임대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오피스텔이 임대형 상품이라는 점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은 개발호재가 있더라도 아파트에 비해 가격에 늦게 반영되고 가격상승폭도 작다.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면, 오피스텔은 임대료가 올라야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시중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실위험이 낮고 일정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국내온행 중 자산규모 1위(2015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1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개 항목만 이제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공은 예공자보호법에 따라 예공보험공사가 보호하다. 보호 만드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공보호 대성 금융성품의 원공과 소청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첫엔당(이며, 첫엔당)을 초고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만 사랑은 상품살병서 또는 NES아나온영 홈페이지(www.kethera.com)을 참조하시거나 명합점으로 분의바랍니다. 휴법감사인 심사원 2015 광고 2054201509.18 Global 지구인 이야기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42 | 43



10년 전부터 노인장기보호제도 운영

대만은 1980년대부터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노인복지 정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정서적으로 닮은 점이 많다. 그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젊은 층이 점차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자식이 모시지 않은 부모를 국가에서 대신 관리해야 하는 상황 등 우리 나라와 비슷한 추세로 고령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10년 전부터 노인장기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5년에는 제도를 새로 정비해 노인보호복지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건강, 사회 일자리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인건강보호로 건강보험으로 노인들의 치료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연금 정책 새 정비 한창

대만이 현재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경제적 안정, 둘째는 신 체적 보호, 셋째는 생활 속 보호다. 더불어 노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교 육에도 집중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 · 중소득층 12만 2,000여 명에게 매월 생계비로 3.600~7,200달러(TWD · 한화 약 13만~2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을 돌 보는 미취업 기족에게도 5,000달러(한화 약 18만원)의 특별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데 우리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제도다.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인연금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노인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신체 적 보호 정책의 핵심은 병원비 지원이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전액 병원비를 지 원하고 중저소득층은 절반 정도 지원받는다. 70세 이상부터는 사회지원계층이 되면 전액 지 원된다. 독거노인을 위한 24시간 응급서비스와 실종노인 예방을 위한 가족통합센터도 운영 되고 있다. 최근 대만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노인의 고독사로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서와 소 방서를 연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췄다. 대만노인 중 16,35%가 혼자 생 활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저소득층도 3단계로 나눠지며 타이페이시 기준 으로 최고 저소득층에게 한 달에 1만4,000 대만 달러(한화 약 52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대 만정부는 가정 상태를 평가한 후 저소득층에게는 병원비를 100% 지원하고 생활비도 보조한 다. 주간서비스센터는 물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 설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대만은 노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만의 정년은 65세, 대만위생복리부 사회자진공작부에서는 은퇴자들이 자 발적으로 가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물관 문화해설사, 학 교나 병원의 청소 봉사자 등이다.

은퇴, 버킷리스트 Future 글. 박지연 기자 pjy95@naver.com

섬이라서 좋다!

느릿느릿 '섬여행'

섬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야 한다. 배 시간에 앞서 넉넉잡고 출발해 야 하고, 날씨에 따라 결항이 되기도 일쑤다. 시간을 잊은 듯, 천천히 가야만 보이는 섬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보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MBN 방송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삶을 사는 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청산별곡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이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누군가가 갖고 있는 자연으로의 귀화 소망을 주인공의 삶을 통해 대리만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프로그램을 보며 필자 도 자연인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곤 했다.

'자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섬 여행이 주는 매력은 <mark>세상의</mark> 시름을 조용히 육지에 내려 놓고 떠난 것 같은 홀기분함이 아닐까. 보기만 해<mark>도 가슴 속</mark>까지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와 투명한 햇살, 그 조용한 섬에서 누리는 고요와 평온이 가슴 가득 행복을 채워주는 느 낌 말이다.

얼마나 기다렸던 봄인가. 봄 섬여행을 꿈꾼다면, 꽃을 따라 슬로시티 청산도로 떠나보 자. 청산도는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배로 약 50분 남짓이면 도착하는데 매년 봄이 면 유채꽃으로 뒤덮이며 장관을 이룬다. 또 4월 한 달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도 열리는 만큼 느릿느릿 섬의 아름다움,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제9회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군 청산도에서 매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열고 있다. 남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 로 유채와 청보리 물결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매년 4월에 진행된다. 청산도의 청정자연, 문화, 역 시를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바쁜 일상을 덜어내고 삶의 행복을 충전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 **기간** 4월 1일 ~ 4월 30일/유채 개화시기(3월 25~4월 30일)
- 주소 전리남도 완도군 청산면

• 장소 전남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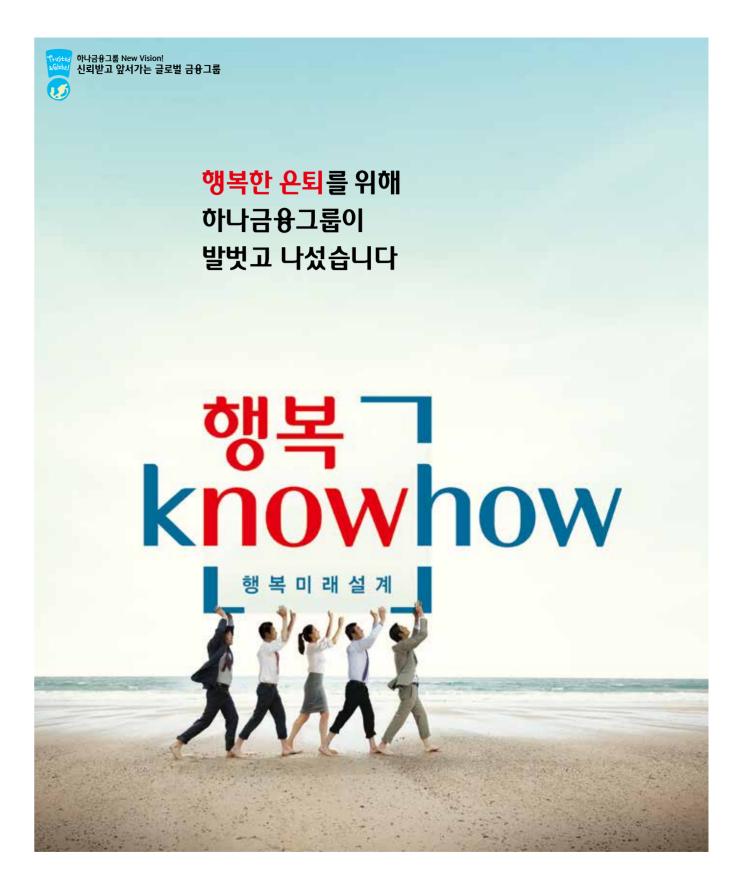
- **요금** 무료
- **문의** 완도군/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 추진위원회(061-550-5413)

하나금융그룹의 ■ 행복knowhow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하나금용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온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용기관이며, 하나 Sk카드는 부보금용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